

“잘 불어야지 생각 놓고나니 이제는 ‘땃소리’ 일뿐...”

산문박의 禪

대금명인 이생강 씨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싯달타>에서 독자에게 강불소리를 들려준다. 처음엔 주인공 싯달타가 강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 자신을 비우고 진실된 경청자가 되자 분노의 외침,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수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강물소리에 싯달타는 운명과 대결을 포기하고 번뇌에 종지부를 찍는다.

대통좌상의 취공과 밑의 청공에 갈대의 얽은 막을 불어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기이하게도 대금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는 돌연변이를 취한다. 음지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게 찌고 휘어져 있는 쓸모 없는 대나무이다. 두께가 얇으면 사람의 입김에 배겨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양분을 모두 빨아먹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대금용 대나무를 베어 버리기 일췌여서 대금소리는 본래부터 듣기 어려운 소리이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대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대나무의 두께에 따라 구멍의 간격과 크기를 조절하고 연주자의 입김이 잘 걸렸을 때에야 대소리다운 소리가 나온다.

반복하지 않고 연결돼야

대금의 명인으로 불리는 이생강(李生剛) 59세, 풍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조)씨를 찾은 것은 싯달타가 깨침을 얻게 한 그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대금은 대(竹)의 소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는 항상 푸르고 곧아서 그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갑니다. 깨달은 이의 마음은 대소리와 같아 오래 이어지지요."

"젊어서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 있었습니니다. 열심히 불었습니다. 밥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대금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반세기가량 대금을 불다보



대금소리
이생강 씨

대금과 동고동락 50년... 산조는 삼라만상 표현 “푸르고 곧은 소리는 듣는 사람 마음 편케해요”

'선생님의 대금소리는 하늘의 선율' 운운하며 치켜세우다가 '그냥 대나무 소리'라는 대답에 머쓱해져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소리듣기에 무심하다. 늘상 열려있는 귀이지만 한번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푸르고 곧은 대소리를 어찌 알 수 있었는가.

"절에서 종성을 들어보셨지요. 한번 내리친 종소리가 끝나는 듯 했을 때 다시금 종소리가 이어집니다. 이렇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대금도 가락이 반복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연주자의 마음이자 기량입니다."

피리 단소 소금 통소 태평소 불어 소리를 내는 국악기는 많어도 유독 대금만이 산조가 있다. 산조는 곧 관소리이다. 사람의 몸짓 말씨가 우리의 음악 관소리이다. 대금산조는 단지 가사가 빠진것 뿐이라 할 수있다.

대금은 65cm 안팎의 죽관악기이다.

니 1등도 꼴찌도 없더군요. 이제는 잘 불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대금을 잡았을때 대금을 부는 놈, 대금이란 놈, 그리고 듣고있는 놈이 없어야 비로소 대금산조가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대금의 명인 이생강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날때부터 대피리, 통소, 태평소의 명인이었던 아버지(이수덕)의 피리소리를 듣고 자랐다. 부친의 재능을 이었던 지 어려서부터 피리의 천재란 소리를 들었고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다. 피리를 불 때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고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자 어린 이생강의 동경이었다.

해방이 되어 그리움의 땅을 밟았다. 그러나 '우리말을 못한다'는 '동네아이들'의 손가락질속에 외로움을 사질 수 없었다. 제일 늦게 익히게 된 대금이 이생강의 마음을 알아 주었다. 10살무렵, 평생의 스승인 한주한 대금명인을 만나 설움과 한의 대금소리를 산조로 바꾸기

시작했다.

손을 불어 대어면 입으로 찬바람을 내서 식힌다. 입에서 내는 바람이다. 그러나 추운날 손을 녹일때는 아랫배에서부터 힘껏 입김을 분다. 바로 이 바람으로 대금을 불었을때 소리를 자유자재 할 수 있다. 스승 한주한은 어린 이생강에게 복식호흡으로 대금을 부는 방법부터 가르쳤다.

벌떼가 꿀 따오는 소리

"대금산조는 삼라만상의 표현입니다. 어려서 절에서 대금공부를 했던 인연으로 종생들의 고통과 깨달음을 저에게 펼쳐지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영산재는 악상을 착안하는 훌륭한 교재입니다."

어느 소리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에 가요 '칠감산'을 청했다. 50년전 스승이 직접 만들어 왔다는 대금을 잡더니 거침없이 입술에 댄다.

지취(부드러움)로 시조한 대금소리가

함들게 칠감산 고갯길을 넘어서는가 했더니 광취(곧고 굳음)로 들어섰다. 다시금 대금소리가 끊어지는듯 이어지고 고취(가장 높은 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여인네의 한을 토해내고 만다.

노래방에서 수업이 불러 제멋든 노래였던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가사속의 여인을 마주대하고 보니 정녕 이것이 대금소리인가 싶다.

"선생님도 바로 이 소리를 들습니까." "잘 불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땃소리일 뿐입니다."

'80년, 유럽순회공연에서 <피가로>라는 잡지가 '수만마리의 벌떼가 꿀 따오는 소리'라고 감탄했던 이생강의 대금소리.

그 소리는 헤르만 헤세의 싯달타가 강에서 수천가지 소리의 커다란 노래는 단지 하나의 말 <음>, 즉 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음>이었다.

이준엽 기자



삽화·이기선

“불태우지 마라” 생명존중 외침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산림이나 공야를 태우시오.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아 남의 집이나 도시나 승방이나 밭이나 사당이나 신당(神堂)이나 관청의 공공물을 불태우지 않으며, 일체의 주인있는 물건들을 집짓 불태우지 말지니라. 만일 집짓 불태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산이나 건물 등에 방화한다면 재산을 손실시키고, 그 속에서는 무수한 생명을 죽게 하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특히 4월에서 9월 사이의 6개월 동안은 짐승과 곤충들이 번식하는 때이므로 방화하지 말라 한 것이다. 법장(法藏)은 산야(山野)와 건물로 나누어 근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산과 들을 불태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살생하는 죄를 막기 위함이고, 집이나 가 보살심 버리고 '火宅' 지어서야

보살이 대지비로 육도에서 삼독(三毒)으로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인데, 방화하는 것은 재산을 손실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며 나아가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이나 건물 등에 방화한다면 재산을 손실시키고, 그 속에서는 무수한 생명을 죽게 하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특히 4월에서 9월 사이의 6개월 동안은 짐승과 곤충들이 번식하는 때이므로 방화하지 말라 한 것이다. 법장(法藏)은 산야(山野)와 건물로 나누어 근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산과 들을 불태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살생하는 죄를 막기 위함이고, 집이나 가 보살심 버리고 '火宅' 지어서야

이러한 생명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제20경계 불구존망계(불구존망계); 방생하고 구제하라)로 이어져 가지 마라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승의 본의적 입장인 ~하라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전개되어 나타난다. 즉 자비(慈悲)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지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나의 아버지였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나의 세세생생으로 보면 그들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육도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다 나의 본래의 몸이니, 그러므로

이 계의 취지에 대해 법장은 보살이 자비심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것도 보살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살은 이치상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중생을 구해야 하거늘, 도리어 화택(火宅)속의 중생을 보고도 지비로 구하지 않는 것은 보살행을 어기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모릅지기 제정하는 것이니라.

이준엽 기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2
방화(放火)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